

# 화학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 양호

산자부, 2/4분기 화학제품 4.6%에 플라스틱 7.3% ... 전체는 부진

국내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주5일제 등으로 조업시간 자체가 줄어들어 산업 생산량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반면, 임금은 2005년 들어 크게 상승하고 있어 생산성 대비 임금을 비교한 단위노동비용은 3분기 연속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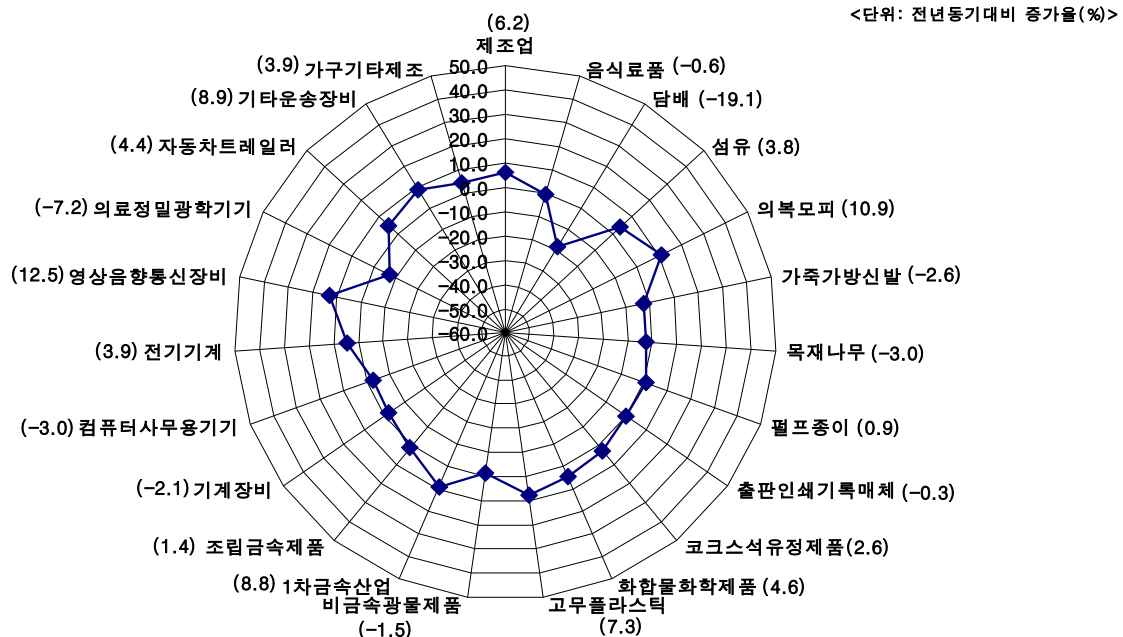
노동생산성은 산업생산 산출량을 노동투입량으로 나눈 값으로 분자인 산출량이 줄거나 분모인 노동투입량이 늘어나면 노동생산성은 나빠진다.

산업자원부와 생산성본부에 따르면, 2005년 2/4분기 국내 제조업 노동생산성지수는 136.9로 전년동기대비 6.2% 상승했다.

그러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04년 3/4분기 10.6%를 기록한 이후 4/4분기 8.8%로 하락했고 2005년 1/4분기 7.7%에 이어 2/4분기 6.2%로 떨어지는 등 3분기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생산현장의 노동효율은 개선되고 있지만 개선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노동생산성 증가율(2005.2Q)



생산량 증가율은 2004년 2/4분기 13.2%를 기록한 이후 주5일제가 본격화한 3/4분기 11.6% 4/4분기 7.0%, 2005년 1/4분기 3.5%, 2/4분기 3.9%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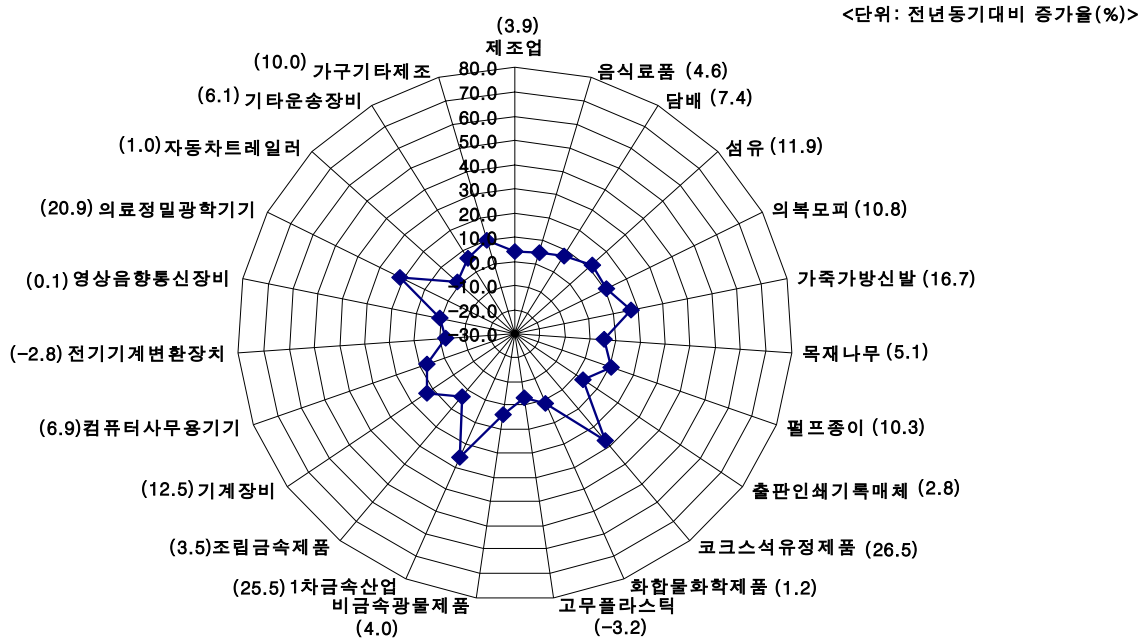
산자부는 “생산량 부진은 주5일제가 실시되고 노조 요구로 주요 사업장에서 특근을 줄이는 등 생산시간 자체가 현격히 줄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동인력과 노동시간을 합친 노동투입량도 2004년 4/4분기부터 감소하고 있지만 워낙 생산량 자체가 부진하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문별로는 IT부문의 노동생산성이 2/4분기 11.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비IT부문은 4.0% 증가에 그

쳐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 단위노동비용 증가율(2005.2Q)



한편, 노동효율은 침체되고 있는 반면 노동비용은 꾸준히 늘어나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다.

2/4분기 제조업 단위노동비용지수는 117.0으로 전년동기대비 3.9p 상승했다.

단위노동비용지수는 시간당 명목임금을 노동생산성으로 나눈 값으로, 노동비용 증가율은 2002년 1.3%, 2003년 2.8%를 기록한 후 2004년에는 오히려 0.8% 감소할 정도로 안정권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2005년 1/4분기 4.6% 증가한데 이어 2/4분기에도 3.9% 늘어나는 등 2005년 들어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5/10/17>